

총회 폐회 미사



총회 위원들이 10월 23일 주일에 폐회 미사를 드리러 안네타 수녀원에 모였습니다. 전례 집전자는 인도 케랄라의 우리 수녀들을 아는 요시 만자쿠넬 데브시아 신부였습니다. 전례는 수녀회의 다른 단위체들 소속 수녀들로 이루어져 국제적이었습니다. 한국 수녀들이 아카펠라로 봉헌성가를, 브라질 수녀들이 영성체 후 묵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총회 중 기도의 뒷받침과 사랑의 환대에 대한 감사로 안네타 수녀들은 조만간 정해질 날짜에 안네타 수녀원으로 올 음식 트럭에서 소시지와 감자 튀김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일의 기사를 읽고, 특히 기도로서 동반함으로써 2022년 총회 여정을 따라왔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좋으시고,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